

韓國의 社會科學教育의 改善方案*

朴 東 緒**

建國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社會科學의 研究 및 教育을 회고해 보면 짧은 時日內에 엄청난 發展을 하였으며, 거의 10年 마다 큰 進展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50年以, 60年代, 70年代가 分明히 區別될 수 있을 정도로 發展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날 큰 發展을 하여 왔다고 해서 現在 相當한 水準 또는 滿足할만한 水準에 와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945年 當時의 우리의 始發點은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그간 큰 進展을 이룩했지만 現在의 水準은 아직 未盡한 點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80年代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社會科學에 대한 수요를 考慮하는 경우 너무나 폭발적으로 增大할 것이 豫想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準備은 未습한 點이 너무나 많아 앞으로의 신속한 發展을 위한 政策建議을 綜合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便宜上 建議對象을 文敎部, 大學本部, 學科로 나누었으나 內容의 體制的 性格上 세 기관이 다 關聯되어 있으므로 關係機關에서는 여기서 제시된 것을 다 같이 綜合적으로 配慮해야 할 것 같다.

1. 文 敎 部

(1) 社會科學의 研究와 教育은 自然科學과 달리 學問의 自由와 自律性이 特別히 要請되는 學問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의 制約이 있는 共產國이나 많은 新生國의 경우 社會科學의 發展에 지장이 적지 않았으며, 우리의 경우도 이의 例外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國家目標에 어긋나지 않는 한 學問의 自由와 自律性이 政府나 理事會(私大)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支援하는 것이 要望된다.

(2) 社會科學의 基本學問은 社會學, 心理學 등이므로 이의 發展 없이 其他 社會科學의 發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全國적인 견지는 勿論 單一大學內의 學科設置에 있어서도 體制

* 이 글은 1980年 文敎부의 요청을 받아 全國의 大學을 평가한 報告書中 筆者가 직접 집필한 綜合建議部門이며 이의 평가에는 責任者인 筆者外에 權泰坡, 宋相現, 洪承稷, 吳洪坪, 李炳穆, 安光植 교수가 참여하였다.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性, 綜合的인 均衡이 維持될 수 있게 하였으면 한다. 왜냐하면 現在까지의 추세는 이러한 基本學問이 等한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資本主義 社會의 취약점이라고 생각되므로 國家的인 次元에서 유인을 제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

(3) 教授의 數의 增加와 質的 向上이 時急히 要請된다. 教育의 成果는 무엇보다도 教授의 質, 士氣에 依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準備 없이 學生數를 增加시키고 있어 重大한 問題를 惹起하고 있다.

따라서 最급한 것은 有能하고 使命感을 갖고 있는 教授의 養成, 供給인데 이를 위하여 外國留學, 國內大學院의 質的 向上, 誘因 提供 등이 要請된다. 그러나 尤감인 것은 國內大學院教育의 形式性 및 有能人의 大學院進學 忌避, 教授職 忌避 現象이 相對的으로 높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政策研究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1次的인 關心을 갖고 效率的인 政策이 구상되어 施行에 옮겨져야 할 것 같다.

이와 더불어 學問別 教授의 需給狀況을 全國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情報센터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現在는 新聞에 公告하거나 個人的 接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雙方間의 時間과 돈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올바른 把握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實驗大學을 實施하고 있는 大學의 경우 科選擇에 있어서 二大問題가 있다. 하나는 國家的으로 수요가 있는데 소위 非人氣性으로 因하여 거의 希望者가 없다고 하는 것, 다른 하나는 系列內의 學科의 配分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同一學科의 學生數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無理하게 系列化시키는 것 보다 人力에 대한 國家的 需要와 大學內의 事情이 考慮되었으면 한다.

(5) 社會科學의 教育 및 研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的인 것은 圖書館의 充實性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文敎部가 1次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래 前에 制定된 設置基準令의 改正과 全國의 公共圖書館 및 學園의 圖書館을 전담하는 기구가 최소한도 課單位로 新設되었으면 한다. (外國은 局單位)

(6) 앞으로 卒業定員制를 實施하는 것에 對備하여 學事懲戒에 관한 基準이 보다 統一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現在 大學間의 差가 크기 때문이다.

(7) 서울에 있는 大學들의 경우 近郊에 分校를 갖고 있는데 서울에도 定員을 增加시키고 있어 分校兼設의 意味가 稀薄해 질 뿐만 아니라 二重의 財政的 負擔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即 아직 서울의 本校도 未備된 點이 많은데 또 하나의 大學을 地方에 建設하게 되어 양쪽 다 不實한 大學으로 轉落하게 될 뿐만 아니라 教授 및 學生이 다 같이 서울에서 通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別個의 專門大學이나 其他 教育機關으로 전환 시켰으면 한다.

(8) 早廻히 작은 大學, 學科를 適正規模화하였으면 한다. 왜냐하면 絶對多數의 私立大學들의 納入金 依存度가 높은 狀況下에서 正常的인 運營이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9) 新設된 學科中에는 類似한 學問인데 學科名이 多樣하거나 지나치게 細分된 것들이 있어 統合하는 것이 要望되며, 이들 중에는 大學에서 4年間 教育시킬 必要가 없고 2年制 專門大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4年制 大學의 人員數가 增加하므로 調整이 있었으면 한다.

(10) 教授의 研究支援을 위하여 研究費, 研究所, 學會誌發刊, 大學出版社에 대한 支援을 考慮할 수 있는데 우선 研究費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人件費項目을 全廢하는 方向으로 推進함으로써 効率性을 기할것, 研究所의 경우는 選擇的으로 重點支援을 할 것. 學會誌의 支援은 現在 設定하고 있는 評價基準에 따라 계속하는데 大部分의 學會誌가 年一回로 그치고 있어 이의 回數增加가 可能하도록 支援하는 것, 끝으로 學問的으로 意味는 큰데 市場性이 적은 圖書의 出版을 大學의 出版社를 통해 支援하는 것이다.

(11) 어느 學科나 助教가 一人 있을까 말까 한데 이의 增員은 一石二鳥의 效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支援이 要請된다. 왜냐하면 教授들의 研究支援도 되고 大學院生에 대한 장학지원도 되기 때문이다. 단 教授나 學校에서 助教에게 非學問的인 雜務를 시키는 것은 삼가야 이의 취지에 一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2) 國公立大學의 教授俸給額이 私立大하고 比較하면 年 近 300萬원의 차가 생기고 있어 이의 조정 要請된다.

(13) 學部生의 軍事 및 體育時間이 土曜日이나 放學中에 實施될 수 있으면 時間表作成 및 講義室의 利用率 向上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14) 私立大學에 대하여 앞으로 財政的 支援을 하게 되는 경우 이의 우선 順位는 圖書購入費, 研究費, 教授·助教의 人件費 등의 順序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教授의 質的 向上과 直結되고 不條理介入의 餘地가 적기 때문이다.

(15) 評賈를 每年 3個班이 하는 경우 다 같이 同一對象인 大學本部에 대해서 할 必要가 있겠는가 하는 것과 一流大學의 경우는 大學院을 對象으로 包含했으면 한다. 이것이 우리의 教育 및 研究發展은 勿論 教授의 養成 供給을 위해서도 緊要하기 때문이다.

2. 大 學 本 部

(1) 모든 大學은 發展計劃을 樹立하여 이에 따른 執行이 있었으면 하며 큰 大學의 경우는 이를 支擔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한다.

이와 같은 準備 및 體制가 되어 있어야 보다 効率的이며 合理的인 發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大學의 發展은 機關長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은 公知의 事實이나 現總學長中에는 大

學에 대한 이해와 管理能力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으므로 이분들의 能力發展을 위한 自發的인 모임을 構成하여 이를 위한 세미나, 討論會를 가졌으면 한다.

이를 通하여 政府 및 財團과의 바람직한 關係, 學問研究 및 學生教育, 教授의 質的向上 및 大學이라고 하는 큰 組織體의 管理能力 등을 討論, 對話를 通하여 向上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試圖이 이루어지면 지난번 겪었던 것과 같은 私學의 內部反撥과 不實한 大學運營을 조차이라도 事前에 豫防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教授의 數的 增加와 質的向上이 조속히 推進되어야 겠다. 學生數의 增加에 따른 豫算의 增大는 數的 增加를 이룩할 可能性을 갖게 하나 問題는 質的 向上인 것이다.

따라서 各大學校는 可及的 公開採用을 外部壓力 받지 말고 하면서 出身學校, 出身地, 추천자와 관계 없이 實績위주로 採用할 것이다. 現教授에 대하여는 博士課程의 이수, 論文作成, 學會出席 등을 하계끔 권장하면서 研究費, 助敎의 支援, 電算센터 등을 活用케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大學校에서는 教授들의 補職比率를 可能한 한 적게 함과 동시에 可能한 한 빠른 時日에 研究財團을 大學校別로 갖추고 教授들의 研究支援을 하였으면 한다.

(4)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이 圖書館이라고 하는 認識을 갖고 이의 發展計劃을 樹立하여 조속한 時日內에 學校全體 豫算의 3%線까지는 최소한도 圖書購入費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司書職의 수적증가, 과학적인 우대와 質的向上이 要請된다.

이와 동시에 좌석수의 增加·圖書貸出期間의 연장 및 소수의 귀중본을 除外한 冊의 開架式 運營 등이 要請된다고 생각되다. (西江大)

現在 우리나라의 絶對多數의 圖書館은 情報供給보다도 讀書공간을 提供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大學의 正常的인 運營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文敎部에서 大學을 支援하는데 우선순위는 圖書館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 되어 있으면 教授, 學生 다 같이 惠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 시급함은 地方國立大學의 圖書館 事情이 私立大學 만큼도 못하다고 하는데서도 證明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實驗大學을 運營하는데 있어 各大學校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學點引下에 따른 必須의 比重增大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 둘째로 科目當 3學點으로 하는 경우 이의 教育效果를 크게 하려면 많은 讀書가 併行되어야 하는데 現在 반드시 그러하지 않아 오히려 공부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 끝으로 大學別로 사정은 다르지만 系列化에 따른 非人氣學科, 零細學科의 問題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는 반드시 學生의 適性에 一致하는 것도 아니며 國家가 必要로 하는 人力需給하고도 一致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實驗大에서 系列別로 모집을 하고 教育을 할 뿐만 아니라 副專攻도 장려하고 있다면 社會에서 採用할 때도 學科別 指定은 止揚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다.

(6) 學科運營 및 教育에 必要한 實習費 및 運營費가 各學科別로 配定되어 있거나 그러하지 않으면 一定한 한도액 안에서는 어려움 없이 學科教授들의 決定에 따라 使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겠다.

(7) 教授들의 보수차가 大學別로 크다고 하는 것, 특히 國公立大 教授와의 隔差가 크다고 하는 것은 國公立大 總學長이 관심을 가져야 할 問題이며, 이와 同時에 大都市의 大學에서는 教授의 사택 또는 Apart, 通勤 bus 등의 편의가 있었으면 하며 이와 同時에 教授會館은 必須內인 것이라 하겠다.

(8) 기사에 가급적 많은 學生을 수용할 수 있게 新築 및 增築이 要望된다. 때구나 서울에서 1~2時間 거리에 있는 地方 大學의 경우 他地域出身(주로 서울出身)이 많아 더욱 必要하며, 이와 同時에 學生會館, 食堂 등의 增設이 要望된다.

(9) 적지 않은 大學에서 運營하고 있는 所謂「高試班」은 非高試班生과의 관계 및 大學教育의 正常化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特別한 과학적인 支援은 삼가했으면 한다. 더구나 앞으로 大學 4年間의 성적, 活動 및 면접을 통한 性格을 考慮에 넣게 되는 경우 이러한 수험준비 및 支援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0) 私立大學의 경우 어렵겠지만 學生數의 增加에 따라 앞으로 가급적 學生의 納入金 依存度의 低下 및 人件費 比重의 低下 등이 이룩될 수 있게 努力이 自體內에서는 勿論 政府에서도 支援이 있어야겠다.

3. 學 科

(1)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學科教授로 構成된 教授會議의 自律性이 높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教科課程, 學生指導, 經費의 支出 및 教授의 임용에 관한 發言權 내지 決定權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大學 또는 學科에 따라서는 아직 歷史나 教授의 事情에 따라 그러하지 못한 大學이 특히 新設 私立大學의 경우 적지 않으나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

(2) 教授의 數的增加와 質的 向上이 要請되며 이를 위하여 大學本部에 대한 說得 및 嚴格한 인선이 要望된다. 이와 同時에 教授 相互間의 학적분위기의 조성, 研究의 진작 주장, 學位取得을 위한 努力, 同僚教授間의 討論會開催, 論文著書의 執筆, 學會出席 등이 장려됨으로써 學問적으로 有能한 教授가 補職者보다 대우받는 風土가 조성되어야겠다.

이와 同時에 여기서 考慮되어야 할 것은 單一學科의 教授의 專攻別構成인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크게 3類型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하나는 同一學問 專攻教授로

構成되는 경우, 두째는 그 學科의 周邊科學의 專攻教授도 內包되어 있는 경우, 세째는 歷史的인 理由로 特定學問 專攻의 教授가 集中的으로 많이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 경로는 教授들의 構成이 同質性을 內包하고 있어 長點도 있으나 근래 學際間的의 交流가 要請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教授의 能力發展은 勿論 特히 學生들의 教育內容에 있어 자칫하면 單一學問에 지나치게 置重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두째는 周邊學問의 教授가 긴요한 分野 위주로 少數 있게 되면 精練한 바와 같은 配단은 없거나 〇분들의 參與, 일체감, 사기에 特別한 配慮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 하지 못한 構成方法은 特定學科가 新設學科의 母體役割을 했다는 理由로 學科의 性格上: 不必要하게 特定學問의 專攻教授가 많아 가지고 教科의 內容을 왜곡시키는 경우라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第3의 類型學科는 조속히 再編成되어야 할 것 같다.

(3) 當該 學科의 專攻必須의 比重이 學部에서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可及的 周邊科學의 科目을 幅넓게 공부하게 함과 同時에 教科編成에 있어서 또 하나 考慮되어야 할 것은 學生들의 卒業後 就業에 必要한 科目을 이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4) 可及的 專攻學問과 擔當科目間의 一致度가 높아야겠다는 것이다. 特히 新設學科의 경우 專攻教授도 적고 해서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專攻科目이 아닌 것을 擔當하는 것은 教授 및 學生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5) 新設學科의 경우는 어렵지만 조속히 教科內容이 標準化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그 科의 教授構成이 무슨 專攻教授들이냐에 따라 教科의 內容이 同一學科이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6) 끝으로 크게 시정되어야 할 것은 教授方法인 것이다. 우선 첫째로 모든 科目에 있어서 一定量 以上の 讀書를 시키고 이를 試驗의 範圍에 包含시켜 必讀케 할 것이며, 이의 成功을 기하기 위해서는 教授들이 自己 著書가 없어도 꼭 教科書를 選定하여 읽게 함과 同時에 圖書館이 이러한 著書가 비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學協同, 또는 實務者와의 接觸을 教授, 學生 다 같이 가짐으로써 現實과 유리되지 않는 教育을 하여야 하며,

끝으로 教授들의 一方的講義 보다 可及的 討論方式을 活用하는 것이 要望된다고 하는 것이다.

結 語

社會科學의 研究 및 教育에 影響力을 갖고 있는 政府, 大學의 責任者는 社會科學의 發展 없이 國家發展을 이룩할 수 없다는 自覺을 갖고 研究나 教育이 從來의 形式主義 및 不實性

을 止揚할 수 있게 積極的으로 支援함으로써 앞으로는 正常的으로 研究 및 教育이 各大學, 學科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었으면 하며, 이의 効率的인 達成을 위해 必要的한 것을 세 가지만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敎授의 質的向上

둘째로 圖書館의 充實化

셋째로 學生들의 學習內容의 量的增大와 質的向上이다.